

# Highlights

하이라이트

## 제1회 대학국제화 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월 28일(수) 오후 1시부터 연세대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대학 국제처와 국제교류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국제화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대학 국제화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대교협은 이날 포럼에서 다루어진 대학 국제화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대학 국제처장, 외국인 교원들의 논의사항을 각 대학과 함께 공유하고, ▲고등교육의 국제화 방안 ▲외국인 교원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우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등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176차 이사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 4월 10일(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회의실에서 제17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교과부 종합감사 처분 조치사항,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관련 추진 사항, 제16대 이사 선출 과정, 사업 예산 확보 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최 계획(안), 신규 사업 및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2012년 대입상담교사단 발대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14일(토) 오전 11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3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대입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입상담 전문가 교사로 구성된 상담센터(1600-1615)에서 무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대학재정지원 개선방안 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월 25일(수) 오후 1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50명의 대학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함인석 대교협 회장은 "대학교육의 질은 재정 투입과 지원에 비례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정책을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도 대학정보공시 담당자 워크숍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30일(월) 배재대학교에서 총청, 영·호남지역 대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도 대학정보공시 계획, 지침서 총괄 및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439개교 정보공시 담당자, 항목관리기관, 교과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2차 워크숍은 5월 4일(금) 한국교총 컨벤션센터(서울 및 수도권, 강원, 제주지역 담당자 대상)에서 열린다.

교과부장관과 함께하는 통통간담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10일(목) <교과부 이주호 장관과 함께하는 통통간담회(화통하게 소통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대교협 사업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정부와 대학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대교협의 기능과 향후 비전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교협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그동안 회원대학 현장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제시하고, 교과부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직원들의 생각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대교협이 고등교육 분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힘써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2년 제4회 CEO특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월 7일(목) 세종대학교에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와 공동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CEO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는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대표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과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라며,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해 현재 세상을 바꾼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손정의가 자신의 꿈을 좇아 성공을 이룬 대표적 사례”라고 말하고, “실패는 젊음의 소중한 자산이며 실패 경험을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했다.

제1회 교양기초교육 국제심포지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은 6월 8일(금) 오전 10시부터 경희대 오비스홀에서 전국 대학의 교양교육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사회에서 교양기초교육의 새로운 의의>를 주제로 교양기초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태수 교수(인제대 인간환경미래연구원장)가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이어 미국 로어노크 대학 폴 한스테드(Paul HANSTEDT) 교수, 일본 도쿄대 마사카즈 시마다(Masakazu SHIMADA) 교수, 미국 보스톤 대학 니탈리 맥나이트(Natalie McKNIGHT) 교수, 민경찬 연세대 교수(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대학교육위원장) 등이 발표하였다.

교기원은 앞으로 매년 선진 교양교육 해외사례를 국내에 확산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